



## 교회의 비전 VISION

평신도 훈련 · 젊은이 선교 · 아시아 선교 · 이웃 봉사



## 제자훈련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도록 할 뿐만 아니라 셀과 구역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로 세우기 위한 약 3개월 단위의 제자훈련 과정과 그 후에 따르는 신병훈련소(Boot Camp) 과정을 말합니다.

원투원 (복음반)	각 처소에서
성경탐구 40일	교육관 I 주일 오후 2:30 / 6:30
제자훈련 I, II (청, 장년)	교육관 I 주일 오후 2:30 / 6:30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본 당 I 주일 오후 2:30 / 6:30



##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곳

- 협력선교사 : 김노아(C국) / 김주만(태국) / 우진호(B국) / 최삼열(C국) / 김성욱(M국)
- 협력 교회 : 아리용무르교회(몽골)
- 협력 단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성경번역선교회(GBT) / 한국기독학생회(IVF) / 한국말알선교단 / HOPE / 한국대학생선교회(CCC) / 한국오엠선교회(OM)



## 모임안내

주일 축제 예배	주일 오전 11시
청소년 축제 예배	주일 오후 2시30분
주일학교	주일 오전 9시
셀 모임	각 셀이 정한대로
심방	화요일
청년부 예배	주일 오전 11시
새벽 기도회	월~금 새벽 5시30분
셀리더 모임	수요일 저녁 9시

##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성식

부목사 박종호  
전도사 권미화  
전도사 이재웅



## BEAUTIFUL NEWS

아름다운소식

제37-23  
2026년 6월 7일

#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가 능력이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요\_마태복음5:6

우리의 지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 속에 가장 깊이 자리잡고 있는 것, 즉 우리의 마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나는 내가 감정을 믿는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옛 저술가들이 말한 '종교적 감정'이라는 것을 믿는다. 현재 우리가 이 '종교적 감정'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느끼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조건은 회개, 순종, 세상과의 분리 그리고 거룩한 삶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것이며, 이 느낌은 너무나 강렬하여 우리를 완전히 압도할 것이다.

더 깊은 삶이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깊은 갈망을 어떻게 완전히 충족시키시는지 점점 더 깊이 깨닫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은 거룩해지기를 갈망하는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거룩함이 되신다. 당신은 성부 하나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가?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당신은 열매 맺는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을 원하는가? 성령으로 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능력이이다.

주 일  
축제예배

나의 영혼이 당신을 찬양하며 즐거워하나이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2:46-47

- 11시 김성식목사
- 경배와 찬양 ..... 찬양팀
- 기도 ..... 이종식장로
- 성경봉독 ..... **마태복음 28장 16~20절** ..... 김목사  
(신약 67쪽)
- 강론 .....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 김목사
- 기도와 찬송 ..... 다같이
- 봉헌 ..... 다같이
- 교제 ..... 서로 돌아보며
- 축도 ..... 김목사

수 요  
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김목사

새 벽  
기도회

월~금 오전 5시 30분  
인도: 박종호목사, 이재웅전도사

- 묵도 ..... 다같이
- 찬송 ..... 다같이
- 기도 ..... 다같이
- 강론 ..... 김목사
- 찬송 ..... 다같이

치유기도 및 개인기도

<매일성경>을 가지고 오십시오  
[고린도전서]  
월 5:1-13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화 6:1-11 부끄러운 송사  
수 6:12-20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목 7:1-24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금 7:25-40 흐트러짐 없는 마음으로  
토 8:1-13 지식보다 사랑으로  
일 9:1-23 스스로 종이 된 자유인

하나님께 영광을!!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좇아 찬양할지이다 시 150:1~2

함께 기도할 제목

- 김민성(선영자매동생) 점점 인지기능이 발달하게 하시고 이전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도록.

지난주 헌금내역

십 일 조	배연만, 엄경연 최영, 권송영
	고시훈 김향심 이하랑
감 사 제 목	1. 기도하는 청년들과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김성식, 전계영)
	2. 미정 언니를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김향심)
	3. 외숙모, 외삼촌이 세례를 받고 외삼촌의 장례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엄경연)
	4. 가족 여행 기간 동안 추억 많이 쌓게 하셔서 감사합니다.(유준호, 최수진)
	5. 주님, 감사합니다.(이종식)
	6. 범사에 감사합니다.(권혜영, 최영, 고시훈, 김명수)

지난주 헌금통계

십일조	7,415,500원	분립헌금	240,000원
감사헌금	620,000원	선교헌금	220,000원
주일헌금	80,000원	나눔헌금	2,750,000원
건축헌금	250,000원	기타수입	70,000원
		헌금합계	11,645,500원

사도신경  
찬 송 : 277  
기 도 : 가족 중  
본 문 : 막8:1-10

### 끝없는 신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삶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는 일로 매우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절망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후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놀라운 근원이 예수님인 것을 보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로 고민하던 나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내어 놓아야 합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믿음의 백성들의 아픔과 삶의 필요를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신뢰입니다.

벼랑 끝에서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신뢰입니다.

**기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크고 작은 필요를 능히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보 기도** · 사직 3동을 향한 섬김이 잘 이루어지도록  
·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기에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 아름다운 소식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는 주일 예배 후에 항상 애찬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교제하기 원합니다.

- 1.치유수양회  
형제 - 6월 13일(토) 오전 9시
- 2.오늘 중직자모임 있습니다.
- 3.성경읽기 수상자들  
·신구약 통독 / 이종식, 전계영, 권혜영, 권정림, 김시우, 문소울  
·구약 통독 / 김선경, 김미정, 이솔  
·신약 통독 / 엄경연, 김다혜, 황정애, 최정숙, 이하랑, 이하진, 이영찬, 이세준, 배주원
- 4.교회 주 계좌가 변경되었습니다.  
온라인 헌금하시는 분은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은행 101-2096-6639-07 대한예수교장로회아름다운교회

섬기는 분들	기도	안내
이번 주	이종식장로	이종식장로
다음 주	이성현장로	이성현장로

섬 김	토·일 2-3층	토·일 1층, 분리수거
6/13일	김익한, 윤병원, 이운우	하랑셀
6/20일	김명수, 김성관, 오금석	하랑셀



### 인도 파난족

파난족은 고대 타밀 민족으로 오래된 타밀 문학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힌두신을 향해 찬양하는 전통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왕궁에서 주요 연설자이자 대사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는 주로 재봉사로 일하며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힌두교에 깊이 뿌리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이기 힘든 그들이지만 타밀어를 사용하는 여러 교회들이 파난족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영화와 복음 자료를 가진 전도팀이 이들을 찾아가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를 기도합니다. 파난족이 복음의 빛 가운데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 환영합니다 WELCOME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감  
당신을 소개하는 글을 올린다면  
어떤 내용으로 꾸미겠습니까?

## 경배와 찬양 WORSHIP

하나님께 접속되어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450장)  
너 시험을 당해 (찬342장)

## 말씀 WORD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28장 16~20절>**

십자가 이전의 제자들은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그저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고, 그분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며 박수를 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셨다 사라지시니, 이제는 새로운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은 일어났는데,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바로 그 막막한 질문을 품고 있는 제자들과 오늘날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최종적인 대답이자 위대한 선언입니다. 주님이 남기신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당부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바꾸어 놓는지, 세 가지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 1. 주저함 속에서도 예배하라

### 2. 세상 속으로 들어가 제자를 삼으라

### 3. 세상 끝 날까지 함께하리라

오늘 본문은 세 개의 질문에 답합니다. 첫째, 의심이 있는데도 예배할 수 있는가? 예.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둘째, 내가 부족한데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예. 주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끝까지 버틸 수 있는가? 예.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이미 파송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느냐?" 예배당 문은 출입문이 아니라 파송문입니다. 주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시 가정으로, 직장으로, 학교로, 이웃에게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와 함께 간다."

**※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성경공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누세요.**

1. 나는 현재 어떤 의심과 머뭇거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까?
2. 나의 삶에서 "제자를 삼는 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3. 나는 말씀을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중 어느 부분이 더 부족합니까?
4.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선교지는 지금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학교, 이웃)
5. 최근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 사역 WORK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순종

- 1."나는 가르침 받은대로 순종하겠다. 제자가 되겠다" 선포하고 기도합니다.
- 2.전인치유수양회의 축복을 오래동안 누리도록 기도합니다.
- 3.기관별 여름 사역을 잘 준비하도록 기도합니다.